

Let's P.S 파트너

(2011.12.15 버전)

제 작 CJ 엔터테인먼트
감 독 변성현
각 본 변성현 김민수
프로듀서 이진희

S#1. 웨스턴 바 (저녁/식외)

간판한 모던 락이 흐르는 약간은 번잡한 웨스턴 바. 한가운데 자리 잡고 앉아 떠드는 남녀 무리들. 현승, 소연, 영민, 수정, 석운. 그들의 시끌벅적한 대화가 시작된다.

석운 술직히 얘기해봐. 불안감이 니 불안 사이로 스멀스멀 올라오지?

영민 전혀.

석운 수정아. 너 알지? 서양 애들이.. 존나 커.

영민아한텐 미안한 말이지만 아마 너한테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수정 그런 포르노 영향 아니냐? 거긴 진짜 무슨 괴물 같은 애들만 나오잖아.

석운 맥에서 봤는데, 사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별 차이 없대.

소연 (미수 지으며) 그 책 저자가 아마 동양인 남자가 아닐까?

영민가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석운은 소연의 말에 박수치며 웃어줬한다.
소연을 흘깃 보고 웃는 현승의 웃음은 웬지 어색해 보인다.

영민 어이, 난 그런 걱정 안 해. 서양 애들은 크기만 크지 무르단 말이야. 니네 분위씩 싸구려 소세지 알지? 존나 물렁물렁하다고. 난 비록 크지는 않지만 단단한 남자가든.

석운 (수정에게) 사설이야?

소연 아. 그런 얘긴 오빠들끼리 있을 때 해.

수정 나 가서 할 일 많거든? 이 나이 먹고 다들 반대하는 유학 가서 남자 같은 거랑 어울릴 시간 없어. 백세게 해야지.

영민 어허! 너 지금 오빠 앞에서 남자 같은 거라고 한 거야?

수정 (옆자리의 영민에게 가볍게 키스하며) 오빠 같은 거가 아니고 남자지.

영민 수정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가볍게 키스를 한다.

그런 수정의 가벼운 키스가 부족함 듯 수정을 끌어안고 덤키스를 하는 영민.

석운이 그런 둘에게 팔권을 던지며 아우한다. "방 잡아라! 새끼들아!"

석운의 공격에 펴진 반죽에 나서는 영민.

신나는 락만을 음악이 시작되고 녀석들 서로 팔권을 잡아 던지며 웃고 떠들며 마시는 모습
이 스케치 되어 보여 진다. 그 가운데 유독 없었어 맥주를 훌쩍이는 현승의 모습.

그리고 현승의 시야에 눈에 보이는 맞은편의 자리따운 그녀 소연. 도화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물씬 나는 소연은 현승의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정의 손을 잡고, 보고 싶을 거라며 연락 자주하라는 당부만 제쳐 한다.

Ins. 섹스주 기계에서 거품을 일으키며 500cc잔으로 시원하게 쏟아지는 맥주.

어느새 술병이 늘어나있고 자신의 맥을 매고 일어나며 이야기 하는 소연.

소연 나 이제 가봐야 될 거 같은데.
영민 안 돼! 가긴 어릴 기!!!
수정 아, 너 오늘 가면 나 일년 동안 못 보는 거야.
소연 공황으로 관개.
석운 웃기지 말고 있어! 너 오세 연락도 잘 안되잖아!

아이들의 아우성애 미안해하는 표정의 소연.
현승은 침묵을 지키다 아이들의 아우성애 한마디 않는다.

현승 그래. 나도 보고 싶었는데 좀 있다 가.

현승의 말이 끝나자 순간 정적이 흐른다. 당황한 현승이 형식수설하며 말을 잇는다.

현승 그래도.. 정 급한 일이 있다면 가는 게 맞겠지.. 급한 일은 언제든지.. 일어나기 마련이잖아.. 사람이 살다보면... 바가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산이라는 게 존재 하는 거고.. 또..
석운 (현승의 말을 끊는다.) 현승아.

석운이 현승의 말을 끊자, 절했다는 듯이 작게 박수를 치는 모습을 취하는 영민.

소연 진짜 미안해. 나 가볼게. 수정아, 공항 가기 전에 통화하지.
수정 응. 그래..

소연이 아이들과 인사하며 자리를 빠져나간다. 소연이 녀석들의 시아에서 사라지자 모든 시선이 동시에 백주를 흘쩍이고 있는 현승에게 쏠린다. '왜?'하는 현승의 표정.

영민 (안쓰러운 표정) 관함지? 그래도 오늘야 우리 수정이 출별원데..
수정 오빠랑 소연이는 따로 부를까도 했는데.. 그게 더 이상하잖아.
그래도 우리 멤버들 한 번에 다 보고 가고 싶었어. 이해하지?
현승 왜 그래? (웃음) 난 진짜 아무 상관없어.
수정 그래. 그럴담 다행이고. 괜히 좀 미안했거든.
소연인 겐찮다고 하는데 오빠가 불면해 탈까봐.
나와 쳐서 너무 고마운 거 알지?
현승 당연히 나와야지. 나도 니 유학 얘기 듣고 되게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했어. 잘 다녀왔으면 좋겠다.

수정, 현승의 말에 감동한 듯 일어서서 현승에게 두 팔을 벌린다. 현승 애석하게 일어서서 수정과 포옹을 한다. 그 모습을 멀뚱히 보고 있던 영민과 석운, 그 둘도 일어서서 괜히 포옹한다. 수정과 포옹하고 있던 현승의 시아에 유리창 밖으로 걸어가는 소연의 모습이 시아에 접한다. 현승 갑자기 일어서며.

현승 나 잠깐만 나왔다 올게.

S#3. 웨스턴 바 앞 도로변 (지붕/실외)

바 입구에서 뛰어나와 두리번거리며 소연을 찾는 현승.
저 앞 길 건너편에서 걷고 있는 소연의 뒷모습을 발견한다.
성큼성큼 걸을 건너는 무언가 결심에 가득한 굳은 표정의 현승.

현승 (흔적일)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러다 도로 중간에서 문득 발걸음을 멈추는 현승.
소연의 앞에 선 외제 차에서 쉼 남자가 내려와 소연에게 문을 열어준다.
깔끔한 정장차림의 30대 중반의 미남자.
빈티지 스타일에 형용어진 머리와 까칠한 수염이 있는 현승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소연은 웃으며 남자가 열어준 차문 안으로 몸을 싣는다.
요란한 배기음과 함께 차가 출발하고 홀로 남은 현승의 얼굴. 몹시 충격적인 표정이다.

S#4. 웨스턴 바. (지붕/실외)

다시 자리에 떨어 주저앉는 현승. 현승의 얼굴 위로 아이들의 목소리.

영민 어디 갔다 온 거야? 소연이랑 얘기하고 왔어?
현승 (아무 말 없이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내젓는다.)
수정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현승 (천천히 손에 붓대를 품면서) .. 남자가 있더라고..

멍한 표정으로 붓대를 품고 있는 현승을 바라보는 영민, 수정.

영민 관함나?
현승 아,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입 밖으로 뛰어나올 것 같은 기 배면 아주 관함아.. (서서히 흥분) 씨발 이게 말이 돼? 이제 겨우 83일 지났어!! 근대 벌써 남자가 생기기 내가 그렇게 하찮았어? 내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랑 친척을 만나고 겨우 두 달 반 만에 기!!
이 때 화장실에서 돌아와 자리에 앉는 석운.

석운 뭐야, 소연이 남자친구 얘기하는 거야?
현승 (석운을 바라본다.)
석운 잘생겼던데? 무슨 호텔 주방장이라고 해서 동등한 권력 잘 알았는데.. (영민이 석운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찌른다) 아!

석운의 말에 순간, 미간이 찌푸려지는 현승.

현승 뭐야, 알고 있었어? (친구들을 둘러본다.) 니네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나만 빼고?

수정 소연이가 말하지 말래서..

영민 좀 지나고 말하라고 했지.

현승 니네.. 니네.. 니네.. 그걸 알고도 날 여기에 불렀단 말이야? 마친 거 아니?

날 아주 병신 만들라고 작정을 했구만..

(벌떡 일어나서 가려다가 수정에게) 너! 너! 니가 그렇게 소중해?

니가 유학가면! 친구들이 한발한사에 다 모여야 돼?

새발 쏜나 한국에서 자리 못 잡으니까 정계대고 도망이나 가는 주제에!!

내일이면 서른인데 월 또 배워!! (영민에게) 뭐? 니가 단단해?

술 먹으면 안선다고 비아그라 검색해보던 새끼가!!

국내 최연소 비아그라 유저일거다 니가!!

석운 아, 범금 그 말은 상처 받겠다.

현승 너 덕처 이 게세끼야! 그 세끼가 잘생겨?

그 주방장새끼보다 내가 더 젊고!! 내가 훨씬 더 잘 생겼어!!

현승이 소리 지르자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술집 안이 조용해진다.

석운 (작게) 돈은 그 사람이 더 많지..

석운의 말에 괴성을 지르며 타이틀을 뒤집어읽는 현승. 그 순간 스텝모션!

우스꽝스럽게 인상을 쓰고 있는 현승의 표정과 타이틀이 읽히자 놀라는 아이들의 모습이 스틸화면으로 보여 진다. 그 위로 타이틀.

타이틀인 나비 P.S 파트너

타이틀 사라지면 스텝모션 풀리면서 우당탕 떨어지는 타이틀과 맥주잔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고개를 숙이고 주저앉는 현승.

깨진 잔들 사이로 흐르는 바닥의 맥주. 그 위로 흐르는 음악.

S#4. 도성의 도로 야경. (밤/실외) - Ins

흐르는 음악과 함께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들이 넘실댄다.

S#4-1. 버스 안. (밤/실내)

승객이 거의 없는 버스 뒷좌석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는 현승.

현승의 얼굴로 서서히 다가가는 카메라. 현승 텅빈는 얼굴로 눈을 감는다.
현승의 그런 얼굴위로 나오는 신음소리.

S#5. 현승의 작업실 (밤/실내)-회상

현승의 작업실 겸 자취방에서 소파에서 부둥켜안은 채로 앉아서 정서를 나누는 두 사람.
방구석구석에 엉망으로 배치되어 있는 키보드, 기타와 악보위로 현승과 소연의 거친 호흡이 들린다.

소연 (현승의 얼굴을 마주보고 쓰다듬으며) 나뭇 거 굴래?

소연의 물음에 정신없이 몸을 움직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현승.

소연 (현승의 얼굴을 품에 안고) 안애다 해도 돼.. 할 때 엉덩이 잡아줘.

소연의 말에 점점 더 호흡이 가빠지는 현승. 절정으로 치달는다.

S#6. 현승의 작업실 (새벽/실내)-현재

따르릉! 화면을 가득 메운 현승의 강은 눈 위로 올라가는 전화벨. 번쩍 눈을 뜨는 현승.
현승 소파에 몸을 파묻고 누워있다 바닥에 놓인 자신의 핸드폰을 찾아 잡는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매력적인 여자의 음성아 들려온다.

윤정(F) 잠이야? 혼자 있지?

현승 (아웃 거리며 액정을 확인 한다.) 자기..

윤정(F) 아무 말도 하지 마. 오늘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내가 듣는 건 자기 숨소리뿐이야..

에스면 버튼 한번만 누르고 노면 두 번 누르는 거야. 알았지?

누운 채로 가만히 수화기를 들고 있는 현승. '이게 뭐지?'라는 표정이다.

윤정(F) 알았으면 버튼을 눌러야지.

현승 알았잖아! 버튼을 한번 누른다. 뻘-

윤정(F) 그래. 착하네.. 자고 있었어?

뻘-뻘- 버튼을 두 번 누르는 현승.

윤정(F) 목소리가 좀 울릴 거야. 나 지금 욕실아거든.. 물소리 들리지?
(절망처럼) 난 욕조에 따뜻한 물 받아놓고 그 안에 편히 누워있어.

현승 아.. 저..

윤정(F) 알하지 않겠지? 넌 지금부터 내 애인건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침을 꿀꺽 삼키는 현승

윤정(F)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려줄게..

전화기를 오른 손으로 들고 있어.
그리고 왼손으로는 아주 친절히 내 몸을 만지고 있어..
응.. 너무 좋다.. 내 허벅지에 소름 돋은 거 느껴치?

점점 호흡이 가빠지는 여자의 호흡소리.

서서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 소파에 걸터앉는 현승.

그 얼굴위로 서서히 끊임 되며 수확기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온다.

윤정(F) 나 지금 손가락이 거기에 닿았어. 거기가 아딘지 알지?

일이 서서히 벌어지는 바보 같은 표정의 현승.

윤정(F) (웃음) 물리? 말면서..

거기 주변을 손등으로 부드럽게 쓸어 만지고 있어.
물이 질랑거려서 더 느끼는 거 같애. 너도 깨내봐.

윤정의 말에 놀라는 현승, 괜히 주의를 두리번거리며 일어나 창 쪽으로 이동해 누가 자길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는 다시앉아 삼머시 바지를 내린다.

윤정(F) 나 지금 나 다리사이에 무릎 꿇고 앉아있어.

그리고 아주 뻘뻘하게 그제 커지는 걸 보고 있어.

자신의 아래쪽을 내려다보는 현승. 짧은 호흡이 새어 나온다.

윤정(F) 먹어도 돼?

최면이라도 걸린 듯 고개를 끄덕이는 현승.

윤정(F) 허벅해줘.. 입으로 먹고 싶어.

아주 부드럽게 먹을 거야.. 친절히 부드럽게 끝까지 먹을 거야..

점점 흥분하는 현승의 얼굴.

윤정(F) 아.. 지금.. 나.. 지금 해줘.. 느껴치? 내가 위로 갈게.

몸 활랑거리는 소리 들릴 거야. 느리고 잘 돌아봐..
활랑거림이 심해지면 내가 좀 더 격렬하게 하는 거니까..

눈을 감은 현승의 얼굴위로 격해지는 여자의 신음소리와 물이 활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마치 옆에서 들려오듯이 들린다.

S#7. 윤정의 질 - 화장실. (세벽/실내)

조그만 화장실에서 물이 잔 고무대야에 손을 넣고 휘휘 저으며 대야 쪽으로 수화기를 가져가 이 대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윤정의 모습이 보인다.

목이 높아난 티셔츠와 팬티자랑으로 가짜 신음소리를 점점 크게 내며 신음소리의 강도가 올라갈 때 마다 대야의 물을 더 휘젓는 윤정.

윤정 아!.. 마치겠다 정말.. 나 갈 거 같애! 갈게.. 더 강게!

고개를 뒤로 젖히며 신음 소리를 더욱 크게 내는 윤정.

그러다 너무 젖혔는지 뒤로 패당 하고 이끄러져 넘어진다.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아!'하는 고통스런 신음소리를 내는 윤정.

윤정의 발에 걸려 돌아진 대야의 물이 화장실 바닥을 흘러 윤정을 적신다.

그 와중에도 전화기를 놓치지 않고 뒤로 쓰러져 있는 윤정.

전화기를 앞에 면 채, 고통인지 쾌락인지 구분이 안가는 신음소리를 낸다.

윤정 (고통에 인상을 찌푸리며) 아..! 아..! 아..!

S#8. 다시 현승의 자취방. (세벽/실내)

거친 호흡을 꼭 참으며 바쁘게 움직이는 절정의 현승.

(이때, 화장실 바닥에 누워 아파하며 신음하는 윤정과 절정의 현승이 빠르게 교차된다.)

짧은 외마디 호흡과 함께 사정을 해버린다. 현승을 내서는 현승.

윤정(F) 했어? 나도 너무 좋았어..

사정 후,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 자신이 한 것에 아이였음을 느끼고 머리를 감싸 쥐는 현승.

윤정(F) 아젠 얘기해도 돼. 안 좋았어?

현승 아.. 좋았어요.. 근데.. 이거 뭐예요?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흐른다.

현승 이거 뭐 060 이런 거죠? 요새는 먼저 전화를 걸기도 하고 그러네..

현승 뭐.. 찾아가는 써비스.. 이런 건가?

현승 어보세요? 근데 이거 지금 통화로 일어나 나간..

운정 너.. 누구야?

현승 네?

현승 철릭하고 공기는 전화 음.

S#9. 운정의 집 - 화장실 (밤/실내)

화장실 바닥에 누운 채, 핸드폰 액정을 확인하는 운정.

운정 010. 3059, 789.577 5?

벌떡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잠시 멍하니 있다 머리를 감싸며 소리를 지르는 운정. 화장실 밖으로 황급히 나가며 전화를 건다.

S#10. 운정의 집-방 (밤/실내)

방문을 닫히 열고 들어오며 전화를 하는 운정. 셔츠와 머리가 물에 젖어있다.

운정 어보세요? 승준씨? 지?

운정의 책상위에는 새로 산 핸드폰 박스가 떨어져 있다.

승준(F) (자다 깬 목소리) 아.. 지금 몇 시야..

운정 미안. 승준씨. 내가 오늘 핸드폰 바꿨잖아.. 아씨..

(월설수설) 내가 주소록을 다 못 옮겨서.. 연락처 번호가 없다 알아.

승준(F) 아.. 그게 뭘 소리야..

운정 승준씨 몇 번호가 7892잖아.. 근데.. (포기) 아냐. 나 전화기 바꿨다고.

승준(F) (짜증난 목소리) 운정아. 나 내일 일찍 출근해야 돼..

운정 어 승준씨, 미안. 잘 자.

독 하고 공기는 전화.

첫은 티셔츠와 팬티바람으로 침대에 정포해 복 얹어져 고개를 베게에 파묻는 운정. 침대에 누워있던 운정의 고양이와 화들짝 놀란다.

운정 아..! 어떡해!! (고개를 쓰옥 몰라고는) 근데 진짜 뭐야 이 새끼?
게 도라아 아니?

Ins -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는 현승의 얼굴.

운정 다시 베게에 얼굴을 파묻고 '아아아악' 소리 지른다.

베게에 얼굴을 파묻고 발바닥을 치는 운정에서 카메라가 될 다른 하면 바닥에 펼쳐진 한 어 성장지를 비춘다.

펼쳐진 페이지에 적힌 기사 제목, '꺼져가는 연인의 불꽃을 되살리는 폰섹스 노하우 10' 그 위로 운미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린다.

운미(F) 폰섹스?

S#11. 백화점 - 라제리 샵 (오후, 실내)

고급 라제리샵에서 속옷을 고르며 걸어 다니는 운정과 유모차를 끌고 그런 운정의 뒤를 쫓는 20대 초반의 운미. 그리고 그 옆의 운정의 친구로 보이는 선글라스를 낀 진주.

운미 (얼굴에 놀람 반, 웃음 반) 아니 모르는 남자랑 폰섹스를 했어?

속옷 가게의 점원들과 손님들이 모두 운정을 바라본다.
운정이 주위를 둘러보자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

운정 좀 조용히 좀 해줄래?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웃으며 눈을 반짝이며 운정을 뚫어 바라보는 운미.

운정 (현승) 정확히 얘기하면 폰섹스는 아니야. 난 안 즐겼으니까.

운미 번호 한번 잘못 누웠다가 간밤에 번데 한 마리 기쁘게 해 준 거지.

운정 (약간 당황하더니 강한 부정) 아니. 절대! (사이) 왜 그런 소리 해?

진주 갑자기 폰섹스를 하거나 어떤 뺨스를 사려는 여자는 이유가 있는 법이거든. 프로. 어쩌다 어디 잤누. 우리 아랑별게서..

운정 연애를 하루살이 같이 하는 니가 뭘 알겠니.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해.

운미 (고덕이며) 아직도 프리포즈 안 했구나?

운정 (말을 돌리며 속웃을 하나 고르더니) 아가 좀 존스럽지?

진주 (운미에게) 그 인간도 너무 하지? 회사까지 관두게 했으면 책임을 지야..

운정 승준씨가 관두려고 한 거 아니라니까!

아! 니들 논에는 이 아문정이 겨우 결혼 때문에 회사 관둔 것 같애?

진주,운미(동시에) 응!

운정 (들을 바라보다 환승을 짓고는 시선을 피하다) 아, 저기 이쁘다!

운정이 몇번자극 움직여 속옷을 집는데, 순간 같은 속옷을 집는 여자의 손.

운정과 여자 서로 마주본다. 둘 다 속옷을 꼭 잡은 채, 놀지 않는다.

윤정 (웃으며) 아저 제가 먼저 점었는데요..
아지 (역시 웃으며) 아저 저쪽에서부터 제가 보고 왔거든요..
이거 만 맞으실 거 같은데.. (하고는 고개를 돌린다.)

아지가 고개를 돌린 쪽을 향해 윤정도 고개를 돌린다.
그녀들이 바라본 곳에 'Glamour Size' 라고 쓰여 있다.
윤정 다시 아지를 바라보다 시선을 밑으로 내린다.
그제서야 그녀가 엄청난 글래머라는 사실을 알게 된 윤정. 머릿실을 골짜 삼킨다.
윤정의 뒤에 서있던 진주와 윤미가 속삭인다.

윤미 (속삭인다) 가슴이 아주 의젓하네요..
진주 (역시 속삭임) 자연스러워..

아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속옷을 잡아끌자 다시 속옷을 접은 손에 힘을 주는 윤정.

윤정 잠깐만요.. 저한테도.. 맛을 거 같은데요..
아지 (기가 찬다는 듯) 네? (웃으며) 아니.. 우기실 걸 우기셔야..
진주 (환발 앞으로 나서며) 아보요, 당신이 우리 윤정이 가슴 봤어?
아지 네?

윤미와 진주가 가세한 3대1의 전투태세. 그때, 달려오는 점원.

점원 죄송합니다. 손님.. 무슨 일이시죠?
윤미 아니. 저 완소같은 아지가 우리 언니 가슴 작다고 무시하잖아요..
윤정 나 만약에! (공격적인 어투) 아저 빼이즈가 어떻게 되요?
점원 네, 손님. 아진.. D컵 이상인데요..

그때, 갑자기 속옷에 손을 뚫 놓는 윤정. 그런 윤정을 바라보는 윤미와 진주.

윤정 .. (아무 말 없이 속옷을 바라보다) 디자인이 별로네요..

S#12. 스페셜 - 사우나 실 (오후/실내)

마사지 가운을 입고 있는 윤미와 진주.

그 앞에 서있는 윤정은 마사지 가운을 마치 바바리맨처럼 확 열여 보인다.
진주와 윤미가 그런 윤정을 뻔히 바라본다.

윤정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며 걱정스럽게) 아빠? 진짜 좀 작아진 거 같지?
진주 승준 씨한테 좀 안지 달라 그래.
윤정 (기운 앞섰을 여미며) 시끄러.

가운을 여미고 윤미 진주와 나란히 앉는 윤정.

윤미 언니야, 나 이혼할까?
진주 아, 니 동생 또 시작이다.
윤미 나 안한지 진짜 삼 개월도 넘은 거 같은데..
진주 아혼 사유치곤 기분이 애매하네..
윤미 그리고 이젠 가슴이 안 뛰어.
윤정 뭐가 진짜 이유야? 등 중에.
윤미 모르겠어. 사랑이 없어서 색스를 그만 둔건지.
아니면 색스를 그만 두니까 사랑이 없어진 건지.
진주 아, 니 동생 멘티 한 장 사줘라.
윤미 결혼을 너무 일찍 했나 봐..
윤정 (원아서며) 너, 슬데없는 소리 마. 우리 얼마 쓰러진다.

윤정 바닥에 엎드려 힘 입 운동을 한다.
그러자, 진주도 일어나나 윤정 옆에 같이 엎드려 힘 입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런 언니들을 뒤에서 지켜보던 윤미가 입을 연다.

윤미 언니들, 그냥 결혼하지 마. 결혼하면 진짜 색스가 좋아.
윤정 (웃으며) 아유 아유. 저 예전 점승 같은 년.
윤미 친족 암컷으로써 애기하는 거다. 우선 채워수가 좋고 그다음엔 핏수가 좋아.
아, 그리고는 (가슴에 손을 대며) 심장박동수가 좋지.
윤정 그런 바약이다. 그거 좀 안한다고 사랑이 식나?
진주 아, 색스랑 대화랑 똑같은데. 소용 없는 사랑이 어딴나?
윤미 맞아요. 아랫도리가 원기해지면 심장도 게을러진다니께.
윤정 알고 안 돼. 난 그래도 승준씨 사랑하는데? (하다가 아차 싣다.)

순간, 힘입 운동을 멈추고 윤정을 뻔히 바라보는 진주.
진주를 외면하고 힘입 운동에 열중하는 윤정.

윤미 불쌍한 우리 언니.. 언니도 많이 굶었구나..

운동을 멈추고 일어나 뒤돌아 윤미에게 말하는 윤정.

윤정 너, 아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
그게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데..

S#13. 현승네 회사 - 사무실 (오후/실내)

윤정의 대사를 받아 빅터이를 느슨하게 한 현승의 옆배져 있는 얼굴.
윤정의 말처럼 정말 피폐해 보인다.

클로저업에서 서서히 좀 아웃 되면서 들리는 제각제각 소리.
원숭이 멍하니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이는 벽걸이 시계가 정각 여섯시를 가리킨다.
모두들 앉아서 말하는 와중에 원숭이 벌떡 일어나 자신의 가방을 챙긴다.
그때 원숭이의 뒤에서 다가오는 김대리.

김대리 원숭이 뭐해?
원숭 (보지도 않고 여전히 챙기기 바쁜) 퇴근이요.
김대리 (원숭) 이원숭씨. 임시한지 한 달 조금 넘었지?
원숭 네..
김대리 그럼.. 알고 있겠네? 저번 주에 광고 했으니까, 오늘 아간 회의 있는 거.
저녁 먹고 금일 일급 시부터.

가방 정리할 하다 멈추는 원숭. 그런 원숭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가는 김대리.

김대리 사장님 돌아오시는 회의니까 면도는 좀 하고 왔으면 좋겠네.

자신의 까칠한 특수염을 매만지며 원숭을 내서는 원숭.

S#14. 고급 레스토랑. (실내/저녁)

카메라가 서방을 하는 웨이터를 따라가다 멈춰서면 타이틀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윤정과 승준. 승준이 자신의 앞에 놓인 고기를 썰어 윤정의 앞에 다정하게 내어준다.
그때 물러나는 승준의 핸드폰.

승준 (한숨) 회사다. 나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윤정 응.

승준이 핸드폰을 들고 일어선다. 그리고 승준을 흘깃 보는 웨이터.
승준이 나가자, 윤정을 보고 제익 웃는 웨이터. 윤정은 웨이터의 표정에 어리둥절한다.

웨이터 (능글맞게 웃으며) 좋으시겠습니다.

윤정 네?

웨이터 아, 아직 눈치 못채셨구나.. 괜히 아는 척 했네, 아닙니다.

윤정 무슨.. 말씀이세요?

웨이터 이런 거 미리 말하면 재미 없는데.. (하다가 바로 빠르게 주워치린다.)
손님께서 왔으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지 아십니까. 저희 레스토랑의 스페셜 플레이스죠. 맞습니다. 바로 연간 수십쌍의 커플들이 이루어진 청혼식
에 지금 손님께서 앉아 개신 겁니다.

윤정 네? 설마..

웨이터 설마가 아니고 신사 분 슈트 안주머니가 물룩한 거 못 보셨나요.

그 물룩한 크기와 형태로 봐서.. 반지케이스라는 걸 유추하는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터랑이니까요..

윤정 놀란 표정으로 레스토랑 원관 쪽에 있는 승준을 바라본다.
승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통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 위로 다시 웨이터의 목소리.

웨이터(F) 손님? 제가 재연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 네? 네.. (긴장한 표정) 말씀하세요..
웨이터 제가 직접한 타이밍에 눈치를 봐서 멋진 포맷포드 송을 하나 선물하고 싶습니다. 아마 신사 분께서 거기까지 준비 하진 못한 거 같은데...
사실 이런 날엔 분위기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정 승준쪽을 바라본다. 승준 전화를 받으며 윤정에게 잠시만 기다리라는 듯 꺾듯 가린다.

윤정 (고개를 끄덕이며) 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웨이터 감사는 굳이 말로 안하셔도 여러 가지 다른 표현 방식에 있습니다만..

윤정, 웨이터의 말에 알았다는 듯 급히 만원파리 새장을 꺼내 주자 웨이터 주변을 둘러보고는 조심스레 손짓으로 접어 달라는 포즈를 취한다. 윤정 알았다는 듯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퍼를 열어 자신의 손바닥 안에 감추고 웨이터에게 악수를 청한다.
제익 웃는 웨이터 윤정과 악수를 한다.

웨이터 (제익 미소) 행복한 하루 되세요.

cut to

음식을 어느 정도 다 먹은 상태의 승준과 윤정. 윤정은 긴장한 듯 눈치를 보고 있다.
승준 넉넉으로 입을 뚝다 생각난 듯 애기한다.

승준 참, 나 자기한테 줄 거 있는데..

윤정 아? (모름 척) 원대?

승준 (제익 웃으며) 그냥.. 별건 아니고.. 잠깐만.

승준 자신의 안주머니를 뒤진다. 긴장한 표정의 윤정. 제발리 웨이터를 바라본다.
카운터에 서있던 웨이터가 윤정에게 손짓으로 오게 하 제익을 보낸다.
그리고 갑자기 음악이 바뀐다. 아소라의 '정환'
승준, 갑자기 바뀐 음악에 잠시 어리둥절해 한다. 그런 승준의 손에 들린 반지 케이스.
원을 골뎌 삼키는 윤정. 승준 반지케이스를 윤정의 타이틀 쪽에 밀어 놓는다.
입을 가린 채 감동받은 표정을 연기하는 윤정.

승준 열아봐. 좀 더 바쁜 걸로 하고 싶었는데.. 맘에 안들면 다시 바꿔..

윤정 됐어.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 해. (케이스를 열며) 보니까나 내가 지금

것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케이스 안을 보고는) .. 머리핀아네..

케이스 안에는 반지가 아닌 머리핀이 빛나고 있다.

말을 잊지 못하고 어색한 웃음으로 머리핀을 바라보는 윤정. 그리고 그런 윤정을 바라보는 승준. 그때 웨이터가 그들 앞에 다가가 최악~ 하고 실 폭죽을 터뜨린다. 얼음이 된 윤정의 얼굴위로 오색빛깔의 실이 흐도려져 내린다.

S#15. 현승네 회사 ~ 회의실 (오후/실내)

"여기 태명을 불러면 점시에 올라 진 동전을 관아지가 게겔스랄게 띄어 치우는 겁니다."

김대리가 새로 개발한 장난감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알빠진 얼굴로 망하니 회의실에 앉아 있는 현승. 연도에 실패해 턱 밑에 붙어 있는 반창고. 김대리의 설명에 따라 각자 자신의 앞에 놓인 데스크 토아를 작동시켜보는 사원들. 그러나 현승은 여전히 망하니 앉아 있을 뿐이다.

아뵤,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던 사장이 입을 연다.

사장 제있네.. 이런 어른들도 좋아하겠어.. 그레, 다들 어떻게 생각해?

사장, 주위를 돌아보다 망하니 앉아 있는 현승을 발견한다.

현승은 그런 사장의 시선을 의식 못하고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사장 마케팅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궁금한데.. 이현승씨?

현승 (그제야 사장을 보고) 네.

사장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현승 (무심한 표정) 네.

현승의 태도에 폭하고 웃는 현승의 맞은편에 앉은 해림.

그런 현승을 향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김대리.

사장은 의지로 화를 참고 미소 지으며 입을 연다.

사장 지금 질문과 대답이 뭔가 잘못 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승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야지.

현승 (역시 무심한 표정) 질문이 뭐였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으며 현승을 귀찮다는 듯이 바라보는 해림.

사장 (화가 나 소리를 지르려다 말고 심호흡하며 안정)

자네 생각에 대해서 묻는 거야.

내가 자네 생각이 아주, 음.. 미치도록 궁금하거든.

사장의 화난 모습에 정신을 차린 듯한 현승. 사장을 비롯한 모두가 현승을 주목한다.

우물쭈물하는 현승의 얼굴로 서서히 웃음.

현승 아.. 제 생각이요? 제 생각엔..

소연 (F) 니 생각?

S#16. 현승네 작업실. (저녁/실내)-회상

소연 니 생각? 아니.. 오빠가 진짜 생각을 해본 적이나 있어?

현15의 현승의 말을 받아치듯 외치는 소연.

키보드 앞에 앉아 괴로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는 현승.

그 뒤에 서서 화가 난 채 서 있는 소연.

현승 왜 그레,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었잖아.

소연 그레, 아무 문제없었지. 처음 받은 오빠네 집이 살만할 때였고 나머지 반

은 내가 일을 했었으니까.

현승 나도 일 하잖아. 안 보여?

소연 일? 그게 일이야? 일이라는 건 돈을 버는 걸 말하는 거야.

거지가 구걸하는 건 일이야. 근데 지금 오빠가 하는 건 일이 아니야.

키보드 앞에 앉아 있던 현승이 벌떡 일어나서 소연에게 마주보고 소리 지른다.

현승 너 씨발 지금 말 다 했냐?

소연 나한테 욕 하지 마! 내가 니 엄마야? 언제까지 널 먹여 살려야 되?

현승 (현승 쉬며 화를 참고는) 내가 조금만 기다려 달렸잖아.

소연 언제까지? 그 말을 믿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

사람 속을처럼 만돌지 마.

안정하기 싫었지만 우린 이젠 현실을 봐야 되는 나이야.

오빠, 언제까지 공만 꾸면서 살수는 없는 거야.

현승 넌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소연 그렇게 얘기 하진 않았어.

현승 (고개를 저으며) 아냐. 방금 그랬어. 니 입으로.

소연 그렇게 생각했으면 지금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어.

현승 아니.. 넌 계속 그렇게 생각해 왔어.

현승 몸을 돌리고 소파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간다.

현승 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아치고 안 되는 거..

소연 (소파에 놓인 기타를 집어 든다.) 다 부서버릴까?

현승 그거 내가 사준거야.

소연 알아. 김슨 레스폴 스텐다드. 좋은 기타지. 얼마 줬더라?

말을 마치고 동시에 기타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현승.
산산 조각나버리는 기타. 현승 손을 다친 듯 손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한다.

소연 (울먹) 너 진짜 개새끼다..

부어잡은 현승의 손사이로 피가 흐른다.

현승 (역시 눈물이 고인 채) 니가 원하는 게 아냐? 원래 그럼?
갑자기 벅타이 빼고 어디 이력서라도 돌릴까? 그렇게 해?
그게 니가 원하는 거야?

현승 쪽에서 소연 쪽으로 카메라 콕 찌기! 다시 렌치로 들어간다.

S#17. 강남 실내 포차 (밤/실외) - 현재

콕 찌는 렌치로 현승의 얼굴. 석운이 선16의 현승의 대사를 받아 입을 연다.

석운 그게 소연이가 원하는 거였어. 어저는 현실적인 동물이거든.
전문용어로는 쌍년 이라고 하지. 그래서 내가 면애를 안하는 거야.

현승, 영민, 석운이 모여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다.

영민 (현승에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소연이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석운 힘들긴! 기본적으로 어저는 싸이코 패스 기질이 있어.
남자의 고통에 무감각하다니까.

영민 (석운의 말 무시) 난 솔직한 소연이가 다시 돌아 올수도 있다고 봐.
그 주방장이란 놈은 너 잊으려고 만나는 거야. 어디 그게 잘 되겠냐.

석운 아, 그런 헛된 희망들이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니까.
어저는 쌍년이다. 소연이는 어저다. 고로..

현승 (무시하고 영민에게) 아, 수정이 잘 도착했어?

영민 응. 점 정리 중이래. 봐봐?

영민, 핸드폰으로 수정이 외국에서 찍어 보낸 사진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다.

석운 (영민의 핸드폰을 쓱 쳐다보)

어저는 뭐를까.. 그냥 하나의 구멍쯤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
난 우리 엄마 빼고 내가 아는 이 세상 모든 여자랑 잘 거야.
아, 수정이랑 소연이는 빼고. (친구들이 자신들 계속 바라보자)
아, 니네 엄마랑 니네 엄마도..

석운의 말에 다시 술을 먹기 시작하는 현승, 영민.
영민은 핸드폰을 확인 하더니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걸어 나간다. "수정아~!"
둘이 남은 석운과 현승. 현승이 석운을 빤히 바라본다.

석운 너 진짜 음약은 완전히 잠은 거야?

현승 (말없이 소주 한잔을 들이킨다.)

석운 (고개를 내저으며) 아깝다.. 소연이가 제능 총만한 청년의 꿈을 깼잖아구나.

현승 내가... 그렇게 제능이 있었나?

석운 그럼! 난 내가 본 최고의 천재 총 라이더야.

현승 (피덕)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들려준 곡 기억나?

석운 말지! 그 곡 쪽음이잖아!

현승 (반색) 그치? 특히 그 기타 솔로 부분..

석운 응.. 나도 거기가 켈 맘에 들었어.

현승 (금 무표정) 기타 솔로 같은 거 없었어.. 피아노 연주곡이었지.

석운 아..

말이 없는 두 녀석에게 다시 합석하는 영민의 모습이 창밖에서 보여 진다.

S#18. 강남의 건물 앞 대로변. (실외/새벽)

웬만 도로의 인도에 우두커니 서 있는 현승. 그 앞으로 택시가 멈춰 섰다.

그러나 이동도 하지 않는 현승. 두달거리며 현승 앞을 지나는 택시.

현승 무언가 결심을 한 듯,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건다.

따르릉 울리는 신호음. 입술이 바짝 마르는 현승.

남자(F) 어보세요. 이소연씨 핸드폰입니다.

소연(F) 뭐해? 뭐! 왜 핸드폰을 맘대로..

복하고 핸드폰을 끄는 현승.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웬만 도로에 우두커니 서있는 현승.
정적이 흐른다. 순간, 구멍질이 나는지 입을 손으로 가린 채, 갑자기 차도 반대편 골목으로
뛰어 들어가는 현승.

S#18-1.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골목. (실외/새벽)

골목 전봇대 밑에서 개워 니고 있는 현승의 모습이 부각으로 보인다.

아직도 속이 안 풀은지 숨을 헐떡거리는 현승.

힘이 빠지는 듯 벽에 기대 뿔뿔 주저앉은 현승 고개를 숙인 채 내뿜는다.

현승 (고개를 숙인 채) 누가 제발 좀 아니라고 해줘..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들어 올라가는 현승.

현승 (지조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다 생년이야.. 다!!!
그래.. 씨발 오늘 끝을 보자.

현승, 눈물을 흘리고 최근 통화 기록을 누른다. 액정 맨 윗줄에 소연의 이름.
액정의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현승. 눈물이 그렁그렁한 현승 얼굴.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손가락을 뺀다.
전화 걸 용기도 없는 자괴감에 무너지듯 현승을 내서는 현승. 다시 액정을 바라본다.
소연의 전화번호에서 쪽 내려오면 액정의 맨 아래쪽에 어제 새벽에 걸려온 윤정의 번호.

S#19. 윤정의 방 (살내/새벽)

방안에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일어나선 새로 미니머치 양주병을 옮기는 윤정.
윤정은 음악에 맞춰 스트레스를 풀려는 듯, 머리를 흔들며 과격한 춤사위를 펼치고 있다.
윤정의 책상위에 일렬로 세워진 미니머치 양주병. 그 중 몇 병은 이미 비워져 있다.
총을 멈추고 열이 오르는지 손 부채질을 하는 윤정, 그러다 머리핀 케이스를 발견한다.
머리핀 케이스를 들어 신경질 적으로 바닥에 던져 버리는 윤정. 색색댄다.
그러다 이내 다시 일어나 머리핀 케이스를 집어 들고 안 부러졌는지 확인 하고는 안도의 한
숨을 내쉰다. 이때 침대 밑에서 우는 전화기.
윤정 리모컨으로 시끄러운 음악을 끄고는 침대 쪽으로 점프해 누우며 전화를 누아낸다.

윤정 어보세요?
현승(F) 원래.. 어지는 다 그래?
윤정 네? (몸을 일으켜 채우며) 누구.. 임마야!!

자신의 핸드폰 액정을 확인하고는 화들짝 놀라는 윤정.

S#20.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골목. (살외/새벽)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주저앉아 전화를 하는 현승

현승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이 사랑이나 제대로 해왔겠어?
다 똑같아. 씨발.. 어지는 어차피 하나의 구멍이야. 맞지?
결국 당신도 씨발로 패스잖아! 하긴 뭐..
윤정(F) 야!! 너 죽고 싶어??!!

S#21. 윤정의 방 (살내/새벽)

화가 난 채 일어서서 전화기에 다고 소리를 지르는 윤정.

윤정 아넌 방중에 포라이도 아니고.. 너 어째 그 변태 맞지?

너 뭇발 한번 먹어 볼래? 뭐? 씨아코 패스??
넌 그냥 씨아코야.. 아니, 씨아코! 포라이! 미친놈! 개변태!

하고는 활짝 웃어버린다. 화가 덜 풀린 듯 씩씩 대는 윤정.

S#21-1.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골목. (살외/새벽)

윤정의 맹공격에 병진 현승.

현승 (한번 훑쩍이고는) 씨아코, 포라이.. 미친놈.. 개변태!

S#22. 윤정의 집-방/ 골목 (살내, 외/밤) - 반활 화면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두고 분을 식히지 못하는 윤정.
그때 책상위에서 드르록 울리는 핸드폰 소리.

윤정 이게 진짜..

책상위에 드르록 거리는 핸드폰이 클로즈업으로 비춰지고 윤정의 손이 화면 안으로 들어와
핸드폰을 누아침과 동시에 화면이 2분 빨린다.

(왼쪽에는 울음기가 채 가시지 않은 채, 화가 나 있는 현승의 멍얼굴이, 오른쪽에는 역시
화가 난 윤정의 멍얼굴이 보인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양새.)

현승 이봐요! 당신 뭐라 그랬어? 내가 씨아코, 포라이 그래, 그거 인정한다.
근데 뭐? 개변태? 개변태는 응신이지! 이 발정 난.. 색색야!
윤정 뭐? 발정? 색색? 이게 미쳤나..

현승과 윤정 동시에 앞으로 걸이 나가면 윤정과 현승의 화면 위치가 바뀐다.
화면 왼쪽엔 침대에 걸터앉은 윤정, 오른쪽엔 담배락 앞에 선 현승.

윤정 너 나 알아? 왜 전화질이야? 진짜 경황에 신고 해버린다?
현승 오밤중에 전화 걸어서 공공 장소 소리 난 건 응신이야!
신고는 내가 할 거야! 성추행으로!
윤정 뭐? 아, 너 증기 있어?
현승 하! 아주 뻔뻔한 여자구만.. 증기 있다!

요즘 전화기에는요. 녹음기능이란 게 있거든요. 당신이 나한테 전화해서
뭘 막 만지고.. 막.. 뭘 먹는다 그러고.. 응기 그거 다 녹음 돼있어!!

순간 조금씩 좀 아뭏되는 윤정 쪽 화면. 반면에 점점 커지는 현승의 화면.

윤정 (순간 당황) ..뭐? 진..짜?

현승 (승기를 잡았다는 미소를 짓는다.) 그럼 진짜지!

아재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한 지 생각 안나요?

아, 맞다! 신고하는 것보다 인턴넷에 확 뿌려버리는 게 낫겠네.

윤정 잠깐만요.. 그런 남자가.. 좀 지사하잖아.. 오.

현승 지사? 싸이코 개변타가 좀 지사하면 안되나?

그래봤자 지사한 싸이코 개변타 되는 건데! (옆으로 걸어 나간다.)

옆으로 걸어 나가는 현승을 카메라가 팬으로 쫓으면 현승 쪽의 화면이 사라지고 윤정의 화면만 남는다.

cut to

침대에 걸터앉아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는 윤정. 잠시 정적이 흐른다.

(여기서부터는 화면 분할이 아닌 윤정과 현승의 교차로 보여진다.)

윤정 (금 상냥한 목소리) 아나.. 사실은 그게.. 제가 남자친구한테 전화 왔건데..

번호를 잘못 불러서..오..

현승 (화가 수그러지마) 아니 그래도 그렇지.. 실수를 본인이 하시고..

왜 엉한 사람한테.. 버터라고 욕합니까..

윤정 아니, 그런 그쪽이 다짜고짜 저한테 전화해서.. 막 혼느끼면서..

여자는 다 똑같느니.. 구멍이라 그러고.. 무섭잖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현승 아.. 그건.. (현승) 제가 좀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윤정 ..해어졌어요?

순간 걸어가던 현승이 발걸음을 멈추고 멈춰선다.

김치가 움직이는 현승. 애써 눈물을 참는 모습이 아련아이 같다.

현승 .. (꼭 참았던 울음이 새어 나온다.) 아뇨..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누구한테.. 할 일이 좀 있었는데.. 얘기하기가.. (울먹)

병신같이.. 얘기할 용기조차 없었어..

순간, 참아왔던 울음이 터지며 주저앉아버리는 현승.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현승의 슬픈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윤정.

그 아이 같은 울음소리에 윤정도 마음이 아픈지 표정이 애처롭다.

현승이 혼느끼며 소변에게 말하듯 얘기한다.

현승 그게.. 말이 돼? 니가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게.. 그게 말이 돼?

아직도, 현승 자고 일어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었으면..

현승의 말을 안터까운 표정으로 들던 윤정, 책상위에 있던 머리카 케이스를 바라본다.

윤정 아무 간만에 갑자기 속상해 지네. 이봐요, 뭐!

현승 (울먹)

윤정 속상한 거 얘기하고 싶죠? अच्छ히 정도 안 오는데.. 좋아! 돌아올게.

대신 그만 울기.

현승. (눈물을 흘리고는) 아니.. 나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딱히 그쪽한테 할 얘기도 없고..

S#23. 택시 안 (실내/밤)

택시 기사가 룸미러로 뒷자리에 앉아 수화기에 대고 미친 듯이 떠드는 현승을 흘깃 바라본다. 얘기를 미구 토해내는 현승.

현승 우린 영혼이 통하는 사이였어요. 영혼이 통한다는 느낌 알아요?

S#23-1. 다시 윤정의 방 (실내/밤)

윤정 자신의 침대에 걸터앉아 헤드폰으로 이야기를 듣다 화장대를 바라본다.

윤정의 화장대 위에 자신의 남자친구 승준과 찍은 사진이 붙어 있다.

현승(F) 우린 다른 애들이 사귀고 이런 거랑은 몰랐어요. 우린 진짜 특별했어요.

윤정 아마 대부분의 연인들이 한번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S#23-2. 다시 택시 안. (실내/밤)

윤정의 앞에 버럭 소리치는 현승.

현승 우린 씨발 진짜 특별했잖니까요!!

택시기사가 흘깃 놀라며 룸미러를 본다.

윤정(F) 음. 얘기가 돌아온다 했더니, 아젠 욕을 하네?

현승 아, 씨발은 그게 욕이 아니라 그냥 감탄사 같은 거예요. 계속.. 해도 되죠?

S#24. 현승네 작업실. (실내/새벽)

현승,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도 통화는 계속 이어진다.

현승 저도 잊을 수 있으면 잊고 싶어요. 근데 불가능해요.

(사이) 아마 앞으로는 영원히 불가능할거예요.

S#25. 공원1,24작업실 / 현승의 1인칭 시점 이미지 shot

카메라가 현승의 눈이 되어 소연을 비춘다.
현승과 손을 마주 잡고 웃고 있는 소연.

현승(F) 그 전사 같은 웃음이랑..

cut to

카메라(현승의 시선) 밖에서 소연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현승의 손.

현승(F) 그 부드러운 머리카락이랑..

cut to

침대에 떨어진 채 엎드려 있는 소연의 웃모습이 현승의 시점으로 보여진다.
역시 현승의 손이 돌아와 소연의 등을 어루만진다.

현승(F) 이제는 다시는 못 만질 거라고 생각하니.. 미처버릴 것 같아요.

S#26. 운정의 방 (실내/세벽)

운정은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전장을 바라보고 현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어느새 현승의 이야기를 진중히 듣고 있는 모습.

운정 진짜 많이 좋아했나 보다.. 너무 좋은 것들만 기억하지 말고..

현승(F) 없어요.. 소연만 나한테 그냥 완벽했어요.

운정 잘 생각해봐요.. 응.. 내 남자친구는 발 냄새가 좀 나는 편이에요.
본인은 그걸 모르지만.. 뭐 없을까요?

S#27. 현승네 작업실 (실내+외/세벽) -교차

현승이 작업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야기 하는 모습이 점프 컷으로 보여 진다.

현승 전소리가 존나 심했어요! 무슨 할머니도 아니고..

cut to

현승 정리 벽! 그 물건들 병적으로 정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cut to

냉장고 앞에 붙어 있는 소연과 현승의 다정한 한때의 사진.
현승, 자석 홀더로 소연의 얼굴을 가린다.

현승 이를 엄청 관어요. (소파 쪽으로 걸어가며)

팔 베게 해주면 내 귀에다가 입을 뽀뽀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들면 바로 팔을 빼버리거든요

운정(F) 또~ 계속 해봐요.

소파에 붙어 있는 현승.

현승 (잠시 머뭇거리다) 그게.. 오래 안 해줘요.. 입으로는..

S#28. 운정의 방/ 현승네 작업실 (실내/세벽) (e.c.u 촬영)

현승의 말에 웃는 운정. 그러다 웃음을 멈추고는..

운정 ... 아직 그 맛을 모르나 보다. (눈=>입)

현승 아.. (침 꿀꺽) (목젖=>얼굴)

운정 난 얼굴에만 사정 안하면 상관 없어요..

현승 얼굴에 하면.. 왜요?

운정 그거 간접근접 한 게.. 콧물 같잖아요.

누가 그쪽 얼굴에 코 풀면 기분 좋겠어요?

현승 (웃음) 아. 별로겠네요.

거울에 비친 현승의 모습. 현승이 몸을 소파에 기대고 눕는다.

현승이 소파에 누우면 화면이 분할되며 침대에 누워 있는 운정과 같이 비춰진다.

마치 나란히 누운 것처럼 (Full shot) 왼쪽 화면 현승/오른쪽 화면 운정.

(서로 몸을 대사마다 돌려가며 일부러 시선을 맞추지 않는다.)

현승 사실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여자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뭐 색스는 아니지만.. 느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운정 (사이) 풀았어요?

현승 네? 네..

현승의 말에 푹 웃는 운정. 멍때린 현승도 따라 웃는다.

운정 (몸을 돌려 누우며) 그래도 다행이다..

현승 그러게요.. (하고는 몸을 역시 돌려 눕는다.)

현승과 운정이 각각 몸을 돌려 누우면 분할된 화면 사이로 마주보며 웃는 두 사람.

마치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있는 듯 모습이 묘하다. 그러다 서서히 웃음이 사그라진다.
아무 말 없이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다.
윤정이 마치 현승의 시선을 느끼고 피하듯 몸을 반대쪽으로 돌려 놓는다.
(순간, 윤정의 움직임에 따라 윤정 쪽의 분할 화면이 사라진다.)

S#28-1. 현승네 작업실 (실내/세탁)

와간 상가 뒷단한 현승의 얼굴에서 카메라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현승의 손이 보여진다.
현승의 손을 천천히 앞으로 뻗치면 화면 밖으로 프레임 아웃.

S#28-2. 다시 윤정의 방, (실내/세탁) - 윤정의 환상

현승의 손이 화면 안으로 프레임 인되며 뒤돌아 있던 윤정의 배를 어루만진다.
파르르 떨리는 윤정의 배, 마치 실제인 듯 진득 긴장한 윤정의 얼굴.
현승의 손이 윤정의 팬티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현승의 손을 막 하고 잡는 윤정.

윤정 너.. 지금 쓰지?

천천히 현승의 손을 놓는 윤정. 그리고 윤정의 팬티 안으로 돌아가는 현승의 손.
눈을 꾸욱 감고 입술을 깨운 윤정, 서서히 양전.

S#29. 노래 교실 (실외/ 오전)

강단 앞에 서서 열정적으로 오버하면서 양희은의 '별개량'을 부르는 윤정 모.
윤정 모가 형 소절 부르면 주부 학생 아주머니들이 따라 부른다.
노래 교실 유리창 밖으로 윤정 모를 바라보는 윤정의 모습이 보인다.
윤정 모와 윤정 서로 눈인사를 한다.

S#30. 노래 교실 센터 지하식당, (실내/ 오후)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윤정과 윤정 모.

윤정 모 집에 밥 해냈다 이야기.

윤정 혼자 밥 먹기 싫단 말야.

윤정 모 그럼 친구들 만나서 뭐든가.

윤정 엄마 나랑 밥 먹는 게 싫어? 애들 다 시집가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

윤정을 바라보는 윤정 모.

윤정 됐어. 아무 말 하지 마. 곧 때 되면 나도 알아서 다 가.

윤정 모 (밥을 먹으며) 그니까 회사를 위하여 관렸노?

윤정 (순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아 쯤!!

cut to

밥을 다 먹고 식판 전반치리를 하며 걸어 나오는 윤정과 윤정 모.

윤정 모 너는 근데 새벽에 원 동화를 그러 오래 하나? 승준이?

윤정 (당황) 어? 아. 그럼.. 우리 아주 좋아. 밤새 동화 할 만큼.

윤정 모 (무심하게 물을 마시며) 누가 물어 봤나?

윤정 엄마.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나랑 승준씨 아때? 특별한 사이 같아?

윤정 모 (원 소리야 하는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본다.)

윤정 아니, 아빠랑은 어땠어? 서로 이 사람은 특별하다..영혼 같은 게 통한다..

막 이런 느낌이 있었어?

윤정 모 그럼.

윤정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먹으며) 언제? 어떤 순간에 그런 느낌을 받았어?

윤정 모 ..오르가즘.

윤정 (물을 마시다 사제가 걸린다.)

윤정 모 (아랑곳 하지 않고 추억에 잠기며 말을 잇는다.)

가끔 내가 나 아빠 하~안 와이셔츠를 막 입고 여기저기 단추 두 개 풀러 갖고.. 여기 양가슴이 살~꼭 보이게.. 그리고 뽀뽀하나 막 입고 궁디 살랑살랑 흔들면 니 아빠가 환장을 했었다.

그 두꺼운 손으로 내 발목을 막~ 잡고..

(앞으로 걸어 나가며) 아. 잘 먹었다.

S#31. 모텔 안, (밤/실내)

하얀 와이셔츠와 팬티 바람의 윤정. 천천히 침을 흘리며 춤을 춘다

젖 단추 두 개를 풀고 입고 하얀 셔츠와 팬티 치림의 윤정의 모습이 거울 속에 비춰진다.

윤정의 뒤로는 반투명 유리 샤워장에 샤워 하는 남자의 실루엣이 보인다.

윤정의 춤이 흥을 점점 도 고조되며 흥을 더한다. 그때 멈추는 샤워 소리.

윤정 시선을 돌려 샤워장 쪽을 바라보면 사각 팬티 치림의 승준이 머리를 말리며 나온다.

승준, 나오다 윤정의 모습을 보고 멈춰선다.

오염한 포즈로 승준의 앞에 선 윤정.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씩 천천히 푼다.

그 모습을 발음이 지켜보는 승준. 그런 승준의 얼굴 위로 와이셔츠가 날아온다.

승준 자신의 얼굴위로 덮힌 와이셔츠를 치우면 화려한 단추의 치림의 윤정.

명함 승준의 얼굴. 그런 승준을 보며 미소 짓는 윤정.

승준 그런 윤정에게 천천히 다가간다. 그러고는 이마에 뽀뽀를 하는 승준.

승준 자기야.. 근데. 내가 술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좀 피곤한데...

윤정 (현승) 알았어. 그냥 주무세요.

승준 (윤정을 지나치며) 그래, 그럼 아침에 하자. (침대에 누으며) 잘 꿀까?

윤정 조용히 불을 끄고 승준의 옆에 눕는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던 윤정이 벌떡 일어난다.

S#32. 윤정의 방. (실내/오후)

전 번의 일어서는 동작에 맞추어 몸을 벌떡 일으키며 수화기에 이야기하는 윤정.

윤정 피곤하니까 아침에 하지나! 여자로서 굉장히 존심 상하잖아.

S#33. 현승네 회사 (실내/오후)

자신의 데스크에 앉아 통화하는 현승, 윤정의 말을 이어 받는다.

현승 남직원구가 진짜 많이 피곤했나보지.

윤정(F) 피곤해도 해야지. 그날 내가 알아나 써서됐는데!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

S#34. 다시 모텔 (밤/실내)

불 꺼진 방에 스탠드가 켜있고 눈을 감고 누워 있는 승준과 그 옆에 눈을 말뚝말뚝 뜨고 있는 윤정.

윤정 승준씨, 나 가슴 수술 할까?

승준 (눈 감은 채) 하지 마.

윤정 (황적 웃으며) 그치? 내 크기가 딱 적당 한 거지?

승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그치 보단.. 수술하면 안될 때 느낌이 확 다르잖아.
행복 불 같아서 싫어.

윤정 (얼굴에 미소가 사그라진다.) 그 행복 불은 어디서 안져 났는데?

S#35. 다시 현승네 회사.

회사데스크에서 앉아 윤정과 물리 동화를 하며 웃고 있는 현승.

현승 그러니까 뭐래?

윤정(F) 흠, 나랑 사귀기 한창 전에 안져났대.

현승 (웃음) 뭐, 그럼 그만가보지.

윤정(F) 아! 7895! 너 지금 7892 편드는 거예요?

현승 설마요.

이 때, 등 뒤에서 현승을 부르는 김대리.

현승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 할게.

현승, 일어나 김대리에게 간다. 그런 현승을 유심히 바라보는 여직원 해림.

S#36. 현승네 회사 앞. (오후/실외)

퇴근시간이 되어 바빠 돌아 나가는 회사원을 사이를 걷고 있는 현승.

그 때 뒤에서 불리는 해림의 목소리.

해림 현승씨! 집에 가는 길?

현승 아. 네.

해림 아 그렇구나~ 제가 오늘 원래 친구랑 약속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평크가 나버렸네? 이를 어찌조?

S#37. 라이브 바. (저녁/실내)

해림과 라이브 바에서 병맥주를 들쭉이는 현승.

해림 (턱지해 몸을 기대며) 음악 하셨다고 했죠? 보낼?

현승 아뇨.. 기타.

미소 짓는 얼굴로 현승을 반히 바라보며 몸을 앞으로 기대어 가슴을 모으는 해림.
현승은 해림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앞면이 쪽 패인 해림의 가슴팍을 훑음 쳐다본다.

해림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음악..

현승 아뇨.. 별로.

고개를 돌려 라이브 바의 무대 위를 바라보는 현승.

무대 위의 기타리스트가 기타를 연주한다. 그것을 바라보는 현승의 표정으로 좀 안.

음악이 바뀌며 현승의 시야로 무대 위에서 기타를 치는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기타를 연주하는 현승의 얼굴로 카메라가 zoom 하며 다가가 기록하면 소년의 말얼함이 포착
임 인 되어 현승의 귀에 대고 "아!" 라고 소리 지르며, 현승의 환성을 깨드리며 과거로.

S#38. 현승네 작업실 (실내/저녁) - 과거

현승이 소파에 앉아 기타를 연주하는데 소연이 현승의 귀에 대고 "아!"라고 소리 지르자
놀라며 기타 연주를 멈춘다.

현승 관짝이야, 왜 그래.

소연 오빠가 나랑 안 놀아주니까 그렇지.

현승 니가 사준 거 같잖아는 중 아니야.

소연 (웃으며) 무슨 기타를 그리 공들여 길들여?

현승 기타랑 여자랑 똑같은데, 조심스럽게 다뤄야 소리가 좋아지거든.

소연 그래? 그럼 나 한번 연주해봐. 어떤 소리가 나냐..

소파에 앉아 있는 현승의 무릎 위에 상반신을 틀의 하며 앞으로 누워 있는 소연. (마치 기타처럼) 현승은 벌거벗은 소연의 갈빗대에 손가락을 간질이듯 톡톡히대. 눈을 감고 느끼는 소연의 나지막한 신음소리.

현승 사운드가 별론데.. 튜닝이 잘못됐나보다..

현승의 말에 몸을 일으켜 현승의 무릎위에 올라타고 아주 얇은 소연. 자신의 허벅지 안으로 현승의 손을 끌어당긴다.

소연 자기가 코드를 잘못 잡은 거야..

현승의 손길을 느끼며 지그시 눈을 감는 소연의 얼굴. 현승의 얼굴로 훑 인되면서 기타소리와 함께 소연의 신음소리가 시작된다.

S#39. 기타 음악 등타주 이미지들 ~ 분할 화면 이용

-다들 는 되면 현승의 현재 모습의 얼굴. (소연의 신음이 윤정의 신음으로 바뀐다.)

-전화기를 들고 눈을 감은 채 신음 소리를 느끼고 있는 현승의 얼굴.

-윤정 역시 전화기를 들고 침대에 누워 콘텍스트를 하고 있다.

-그때 문이 벌럭 열리며 들어오는 윤정모. 루디락 이빨로 가리며 책 읽는 책을 하는 윤정.

-회사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현승과 해침. 눈인사를 나눈다.

-윤정과 승준이 야외 놀이동산 데이트 중 울리는 윤정의 전화.

-누구나고 문자 당황하는 윤정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승준.

S#40. 현승네 작업실 (실내/밤)

TV화면에 성인영화가 나오고 있고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보고 있는 현승. 그때 음악소리를 끊으며 울리는 현승의 핸드폰.

현승 (색정을 확인하고는 밤자마자) 지금 팬티 뭐 입었어?

윤정(F) (웃음) 검은색 티 팬티.

현승 (가우풍) 어차? 티팬티는 엉덩이 아픈 여자들이 입는건데..

S#41. 윤정네 집 앞 공원. (실외/밤)

공원을 걸으며 웃으며 통화하는 윤정. 신력하는 몇몇 사람들도 보인다.

(등타주 마지막 장면과 같은 의상)

윤정 어! 니가 나 힐 라인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예쨌, 내가 이걸 보여 줄 수도 없고..

S#41-1. 현승네 작업실/윤정네 집 앞 공원 (실내, 외/밤)

소파에 앉아 통화를 하는 현승과 걸어가며 통화를 하는 윤정이 교차로 보여진다.

현승 아이고. 어떤하시겠어요.

윤정 (발랄하게 웃으며) 엉덩이뿐만이 아니라니까?

몸 자체가 그냥 선전적으로 막 아배.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근데 너무 서구형 음매라서 친근감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걱정이야.

cut to

공원에 있는 등그란 볼록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말하는 윤정.

윤정 (신났다) 음매도 음벤데.. 얼굴 쪽으로 가면 문제가 더 심각해.

가끔 내가 내 얼굴을 봐도 놀란단니까? 매일 매일이 새로운 거야.

(거울을 보며) 이게 사람이야? 어머머 인형이 아도 해녀?

거울 뒤로 윤정을 뻗어 바라보는 할아버지. 윤정 창피한 듯 조르르 도망친다.

윤정의 얘기를 들으며 웃는 현승의 얼굴에서 윤정의 목소리가 이어 들린다.

윤정(F) 아무튼, 넌 나랑 이렇게 통화 하는 거 영광으로 알아야 돼.

현승 (웃음) 안 보이는데 무슨 말을 웃해? 우리 안날까?

어전히 밝은 표정으로 신나서 통화하는 윤정. 그리고 역시 통화를 하는 현승.

윤정 넌 나 실제로 보면 놀라서 아아 말도 못할 걸?

현승 아니 진짜로.. 안날까?

순간 윤정의 발걸음이 멎는다. 둘 사이에 흐르는 침묵.

현승 왜?

윤정 우리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 할 수 있는 건 만난 적이 없어서 일거야.

진짜 만나면..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거.. 넘어서는 기분 일거 같아.

현승 (고독이며) 알겠다. 무슨 말인지.

윤정(F) ..요즘은 그 여자 친구 안보고 싶어?

현승 .. 보고 싶지.. 늘. 안 깨나..

공원 벤치에 앉으며 이야기 하는 윤정.

윤정 하나만 묻자. 넌 니 여자 친구 만나는 동안 다른 여자랑 전 적 있어?

현승(F) 응?

윤정 바람 핀 적 없다고.

현승(F) 안마 같은 것도 바람이야?

윤정 말하는 거 보라.. 그렇 그거 빼고는?

S#41-2. 현승네 작업실 (화장실)

번기뚜정 물리며 통화하는 현승.

현승 한 번..

윤정(F) 나쁘다. 나도 참.

현승 (실적 발권) 훨씬 동안 한번이면 양호한 거 아니냐? 넌?

윤정(F) 너 진짜 못 봤구나? 난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안 걸렸어?

현승 (한숨) 걸렸지..

S#42. 현승네 집 앞 골목, (실내/밖) - 과거

현승 전봇대 앞에 선 채로 소연에게 손바닥으로 얼굴과 뺨뺨 등을 구터당하고 있다.

눈물을 흘리며 책두르는 소연의 양손을 잡는 현승.

현승 뭐 한 번 있었어, 술에 취했었고,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 모르겠어?

눈물범벅인 얼굴로 현승을 뺨히 바라보는 소연. 그 위로 윤정의 목소리.

윤정(F) 아우~ 대사 오그라든다. 그래서?

윤정의 대사가 끝나자마자 현승의 중앙부를 건어차는 소연.

앞으로 그대로 고꾸라지는 현승.

현승(F) 용서 받았지.

S#43. 윤정네 공원 벤치 (실외/밖)

공원 벤치에 앉아 통화를 하는 윤정.

윤정 관대 하구나, 소연씨..

현승(F) 7892는 있었어? 바람 핀 적.

윤정 아. 네 남자친구가 너 같은 줄 알아?

윤정의 얼굴로 서서히 좀 인.

현승(F) 좋은 남자네..

윤정 그럼! 좋지.

윤정의 얼굴로 계속 품인 되면서 작게 빗소리와 와이파 소리가 들려온다.

S#44. 승준네 집 앞 골목 - 윤정 차 안. (실내/밖/바) - 과거

앞 유리창에 내리는 가는 빗줄기를 두어내는 와이파.

침은 여자를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실랑이를 벌이는 승준.

결국 못 이긴 척 여자가 승준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다.

입술을 앙다물고 지켜보는 윤정. 눈에 눈물이 차오르며 슬픈 표정으로 서서히 변한다.

그런 윤정의 얼굴에서 작게 흐르는 슬픈한 단조의 와이파.

S#45. 윤정네 아파트 공원 벤치 (밖/실외) - 현재

슬슬한 와이파 소리와 와이파 웃으며 통화를 하고 있는 윤정의 뒷모습이 넓게 보여진다.

S#46. 승준네 회사 앞 (실외/밖)

ins. 정성것 모양을 낸 도시락 뚜껑을 여는 윤정의 손.

맛있게 도시락을 나눠먹는 두 사람.

관공한 은태 안경을 쓴 승준의 양 볼이 가득하다.

승준 (양볼이 가득한 채)사 먹으면 되는데.. 쨌 고생스럽게 이런 걸 싸와.

윤정 그래도.

그때 벤치 뒤로 담배를 물고 지나가는 40대 남자.

승준, 윤정에게 반찬을 집어주다 남자를 발견하고 벌떡 일어나 인사 한다.

승준 부장님 식사 하셨어요? 이것 좀 드셔보시겠어요?

부장 먹었어요, 아. 미스 리! 잘 지냈어요?

윤정 네, 잘 지냈어요. 부장님 살 많이 빠졌네요.

부장 미스 리 그만 두고 스테이크 빼어서..

(담배연기 내뿜으며) 좋은 결혼 언제 해?

승준 해아쥬. 합니다? 하하하.

대머리 부장 웃으며 가던 길로 걸어간다.

윤정 (승준을 뺀히 바라보며) 언제 할 건데?

승준 (윤정의 앞에 서린 당배 안기를 손으로 뒤흔 지으며)

아.. 저 대머리 독수리.. 매너 없게..

윤정 나 이 회사 승준씨 때문에 점었다.

승준 지금 부담 주는 거야?

윤정 (해 웃으며) 응!

승준 오케이! 그 부담 내가 짚수한다!

(하다가) 근데.. 내가 그만두라고 하면 아니지 않나?

윤정 (해중) 같이 일하기 불편하다며..

승준 그냥 좀 눈치 보인다고 한 거지 내가 언제.. (하다가 환승)

말이 없어지는 승준과 윤정.

승준 (상냥하게) 윤정아. 그냥 이 오후 좀 믿고 좀만 기다려 주면 안 될까?

윤정 .. 오늘 몇 시에 볼 거야?

승준 응?

윤정 오늘 우리 같이 있기로 했잖아.

승준 아, 맞대! 어째지? 나 오늘 우리 팀끼리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윤정 아.. (서운해지는 윤정의 표정)

승준 (윤정의 눈치를 살피다) 물레? 술 한 잔 하고 가면 되지 뭐..

윤정 그럴까? (승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많이 먹어~

윤정, 승준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S#47. 원승네 회사 - 화장실 앞 복도 (실내/오후)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던 원승, 입구 앞에서 기다리던 해림을 보고 깜짝 놀란다.

해림 오늘 저녁에 시간 아때요?

원승 (약간 당황하는 얼굴) 아니 뭐, 약속은 없는 데..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는 김대리.

김대리 원승씨는 참.. 일에는 열의가 없어도 다른 쪽으로 열의가 넘친다 말이야?

(중얼) 그것도 화장실 앞에서.. 쯤..

김대리가 원승과 해림 사이로 스며 지나간다.

해림이 그런 김대리의 뒤를 추며 거침 없이 입을 뻗어 가는 원승에게.

해림 일곱시 표로 예매할게요.

S#48. 상암동 cgv 로비. (실내/저녁)

티켓팅을 하고 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원승과 해림이 지나가면 스태코너에서 팔권을 받아들이고 돌아서는 소연과 소연의 새 남자친구.

S#49. 극장 안. (실내/저녁)

불편한 얼굴로 해림과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원승.

극장에서 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소연과 소연의 새 남자친구.

이미 자리를 잡은 관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들어오는 두 사람.

원승에게 미안하다 말하며 비치고 들어오는 소연의 남자친구.

자리를 비켜주던 원승, 워파라 들어오는 소연의 모습에 멈춰선다.

원승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무심코 지나치는 소연.

CUT TO

스크린에서 남녀 주인공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서로 다른 쪽과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는 원승과 소연.

스크린만 응시하며 망설이던 원승이 고개를 돌려 소연을 바라본다.

영화할 보고 있는 소연의 얼굴위로 스크린 불빛이 일렁인다.

그런 소연의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남자친구. 영화는 보지 않고 그쪽만 바라보는 원승.

S#50. 넓은 호프집 (실내/저녁)

회사원들로 가득채운 넓은 호프집.

시끌벅적한 분위기의 윤정과 승준 그리고 직장 동료들. (남자3, 여자1)

원식 재수씨는 오세 얼굴 보기도 힘들어. 지난번 쟁쟁 때도 안 오고가

윤정 어머, 쟁쟁이요? (승준을 바라보며) 들렸는데?

승준 (시선을 피하는) 그때 너 무슨 약속 있었을 걸.

원식 양튼 이렇게 모일 때라도 얼굴 좀 보여줘요.

윤정,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고덕인다.

그때 뒤에서 20대 초반의 한 여자가 걸어 들어온다.

원식 어기야! (승준에게) 내가 불었어.

승준 아.. (떨떠름한 웃음) 잘했네.

최양 (자리에 앉으며) 뭐야, 나 꺼도 되는 분위기 맞죠?

최양을 보는 윤정의 얼굴 순간 얼음이 된다.

S#51. 승준네 집 앞 골목 - 윤정의 차 만. (실내/밖/바)-과거

현 44의 장면이 재방된다.

앞 유리창 너머 최양을 붙잡고 집에 돌아가자고 실랑이를 벌이는 승준의 모습.
(현 44보다 최양의 얼굴을 더이더러게 잡아준다.)

S#52. 다시 호프집.(실내/지붕)-현재

멍한 윤정의 얼굴위로 완식이 애기한다.

완식 아, 제수씨는 모르겠구나. 제수씨 그만두고 돌아온 친구라..
(최양에게) 만사해. 넌 선배님이시다.

최양 언짢하세요. 언니, 대리님한테 애기 많이 들었어요. (승준에게)
뭐야, 이렇게 이쁘시다고 애기 안했잖아요.

승준 (웃으며) 내가 말했잖아. 나 보는 눈 엄청 높다요.

승준, 웃으며 다정한 윤정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멍한 윤정의 얼굴.
윤정, 멍한 표정으로 승준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고 땅콩을 오독오독 씹는다.
그런 윤정의 얼굴위로 물리는 화기에 애한 직장동료들의 대화.

최양 (외투를 벗으며) 다들 일어나 마셨어요?
완식 (외투를 받아주며) 얼마 안마셨어. (배우편을 건네며) 안주 뭐 더 시켜~
여직원 이거 무슨 차별이야? 나한테 안주 묻지도 않더니?

여직원의 말에 웃는 승준과 동료들. 그때 씩던 땅콩을 벌는 윤정.

윤정 (고개를 숙인 채 중얼) 그냥 술집 어지길 바랬는데.. 후배였네..
(승준을 바라보며) 마치 나처럼?

승준 뭐?

윤정, 갑자기 테이블 위에 올려진 담배갑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는 불을 붙인다.

승준 아, 너 뭐하는 거야?

윤정 아.. 아가? 맞다! 끊었었지? 너 때문에?

윤정, 승준의 피처전에 담배를 넣어 끄고는 벌떡 일어나 그 맥주를 승준의 머리위에 붓는다. 흠뻑 젖는 승준. 당황한다.

병원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보는 회사 동료들. 이번엔 윤정 최양을 바라본다.

그리고는 또 다른 피처 잔을 들어 올리자 음뻑하며 피하라는 최양.

그런 최양을 보고 픽 웃는 윤정.

윤정 꼬마아. 넌 몇 살이야? 스물 넷? 다섯?

에 보니까 한창 니가 나 따라 다닐 때 생겼나네. 그치?

승준 윤정아.. 니가 무슨 오해가..

윤정 딱치고 들어!!!!!! (심호흡) 완식씨, 완식씨도 기억나죠? 내가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도 맥주 막 잔잔만 하치고.. 그 때 거절 했어야 했는데.. 그 맥주 잔잔 두잔 먹어주다 보니까.. 그게 5년이나 되었다.

윤정 자조적인 웃음을 지으며 턱씩 자리에 앉는다. 모두 승준인 채 윤정을 바라본다.
승준의 잔에 맥주를 따르고 자신의 잔과 부딪치는 윤정.

윤정 마시. 이게 너랑 마시는 마지막 맥주야.

윤정 벌떡벌떡 맥주를 들이킨다. 그런 윤정의 모습위로 물리는 승준의 목소리.

승준(F) 쉴 그렇게 금하게 마시.

윤정 금하게 마시마 승준의 목소리에 사례가 들린 듯 콧물거린다.
승준을 돌아보면 젖어있지 않고 멀썩힌 승준.

화면이 넓어지면 최양도 그대로이고 아전까지의 상황은 윤정의 상상임을 알 수 있다.

승준 완전히 마시라고.. (다정하게 등을 두들겨주며) 채 하겠다..

완식 (웃으며) 제수씨가 술이 고팠네.. 아, 좀 시드려라 임마.

최양 언니. 은근히 술 잘 마시나 보다.

승준 에 제대로 마시면 나보다 쉴 길? 한번은 말아..

최양과 승준을 번갈아 바라보는 윤정의 얼굴.

S#53. 극장 화장실. (실내/지붕)

극장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소연의 남지친구.

현승이 돌아와 바로 옆에 위치한 소변기에 자리 잡는다.

소연의 남지친구를 힐끗 거리는 현승. 반면, 소연의 남지친구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소연의 남지친구가 용우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현승이 부른다.

현승 지기요, 아지씨.

남친 네?

현승 아~씨. 거, 일을 그런 식으로 보면 어떡해요, 바지에 다 뒹졌잖아요.